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강남포교원 승만회

따뜻한 도시락에 자비 담아요

총지중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관장 여익구)가 위치한 강남구 역삼 2동.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는 이곳에 고급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다. 그러다보니 재개발 구역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살던 터전이 사라지기가 다반사다.

이렇게 재개발의 틀바구니 속에서 혼자 힘겹게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도시락의 온기를 전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강남포교원(원장 성철) 자원봉사자 모임 승만회 회원들이다.

3월 29일 승만회는 매주 화요일마다하던 대로 도시락에 밥을 눌러 담고, 반찬을 가득 채웠다. 일주일에도 두 번 나가는 밥과 반찬은 밥값을 낼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 거를 수가 없다.

“처음에는 정말 깜짝 놀랐죠. 말도안 들었지 강남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이 계시리라곤 생각도 못했거든요.”

승만회 회장 광경희 보살은 5년 전, 외관은 여느 단독 주택과 비슷해 보이는 건물의 지하 속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조차도 지하의 너댓 평 남짓한 독거노인 쉼방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를 정도로 잊혀지고 소외된 공간이다.

어두컴컴한 계단, 수시로 물이 떨어지고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복도. 광경희 보살과 송태영 보살의 머릿속에는 오직 밥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독거노인들의 모습만이 떠오른다.

“여기서 페인트칠을 하면서 살아가던 그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 그 양반 담배를 너무 많이 태워서서 격정이었는데.”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오는 길, 승만회 회원들은 지금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버린 재개발 지역 독거할머니 생각에 먼 곳을 한 번 바라본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강남포교당 승만회 회원들이 3월 29일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는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고 있다.

■ 후원해 주세요 - 생필품 부족합니다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 외에도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과 같은 복지관 자체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노인들에게 전달할 물품이나 식료품이 많이 필요한 상태다. 승만회

조인옥 보살과 정미영 보살은 “어렵게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결연 후원을 맺는 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지만 빵이나 곡물, 생필품 후원도 항상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02564-9294)



불교계 각 복지기관과 단체는 어려운 이웃들과 인근 주민과의 결연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3월 18일 열린 진각복지재단 서울시립요양원 생일잔치 모습.

“이웃들의 버팀목이 되어 주세요”

독거노인·장애인 등과 주민 결연사업 확산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홀로 살고 있는 정시내(가명·76) 할머니에게는 올해 2월, 아들이 하나 생겼다. 인근 성북노인복지관(관장 정성욱, 02-929-7950)에서 지역 주민과 독거노인들의 결연 사업의 일환으로 할머니에게 다발이 금전이나 물품을 후원해 줄 지역 주민을 연결해준 것이다. 이러한 결연이 정 할머니에게는 금전적 후원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기댈 수 있는 안식처로 느껴져 외롭던 삶에 새로운 희망이 됐다.

불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원대한 사람이 없어 우울증까지 겪고 있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불교계 각 지역복지관과 노인·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어려운 이웃과 지역 주민을 연결시켜주는 결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해홍, 051-628-6373)에서는 ‘독거노인에게 안부전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일대일 결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화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과 심리상태를 물어보는 것이다. 5명의 후원자는 독거노인들에게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급하는 결연도 맺고 있다. 안부전화 봉사자 김은숙 씨는 “독거노인들에게는 전화 한 통, 발걸음 한 번이 모두 소중하다”고 말한다.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전승범, 02-3494-4755)도 ‘어려운 이웃에게 버팀목 되어주기’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어려운 아동, 청소년, 노인 등 특정한 대상을 정하여 일정금액의 생계비 후원은 물론 정기

방문과 맞바탕, 건강체크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정신적·육체적 도움을 주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결연 사업은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명궁, 02-989-4215)에서 시행하고 있다. 2000년부터 장애 아동과 어르신들, 복지관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결연을 맺고 약 9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 강북장애인복지관은 특히 복지관 인근 지역의 장애인 중 거동을 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결연 사업을 진행해 이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다는 뜻을 두고 있다.

승가원 산하 상락원(원장 지용, 02-921-6410)은 ‘장애아동 개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자와 장애아동이 일대일 결연을 맺어 아동들의 자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상락원 주은희 사회복지사는 “언어치료, 원예치료, 종이접기 등의 프로그램은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고 함께 하는 사람에 대한 친밀감을 높여 아이들이 사회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한다”며 결연사업의 치료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02-723-5101)과 진각복지재단(02-942-0144)은 산하 기관과 시설들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면서 각 복지관의 결연 사업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진각복지재단의 경우, 서울지부 각 심인당에서 서울시립요양원 노인들과 결연을 맺고 매달 생일잔치를 후원하고 있기도 하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도와주세요

생명나눔 4월의 환우 최한호씨



“타고난 장애도 극복했는데, 다시 일어선거예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가 4월의 환우로 선정한 최한호(45)씨. 지난해 8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급성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들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 때문에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최씨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생활 터전으로 나가 부인과 아들 준성(5)이를 부양하는 강인한 면모를 보여왔다. 낙담하지는 않았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던 최씨는 자신의 병 때문에 부인이 사재까지 쓴 것을 알고는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빨리 일어선다”는 의지가 강한 최한호씨. 그러나 그에게 남아있는 의료비와 지금부터 받아야 할 치료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어 막막하기만 하다. (02734-8050) 김강진 기자

나눔의 손잡기 성금

신남성초등학교 3학년 4반(담임 박인자) 81,150원
이옥순 성정순 신상규외 250,850원
박상환 100,000원
황인운 50,000원

총 누적금액 39,425,470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칩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이념과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범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범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유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금원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 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약사여래부처님의 원력으로

장애를 가진 스님이기에 몸 아픈 이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고경사 자광스님은 오불전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고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을 부처님의 원력과 스님의 지극정성 기도로 치료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각종 신병 - 친견 상담 환영

스님 자신은 장애자이지만 정상인으로 오히려 장애자를 돌보는 듯했다. 뒤늦게나마 확인되어 알려진 청산자광스님의 부처님의 지극한 불심은 불치병에 걸린 모 중합병원 의사의 어머니가 후

대경북신문 2004년 12월 21일자 5면
최재의 스님 탐방기사 중에서

두암팔기로 현대의학으로 고칠수 없어 아들과 함께 고경사에 와서 먹은거라고는 겨우 스님이 준 사탕 2개를 먹고 완치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그냥 나올리는 없지만 스님이 가르쳐준 지켜야 할 일을 병행해서졌지만 아무튼 기적이 아닌가?

원인모를 병으로 서울 등지의 유명의원을 전전해 오면서 생을 포기하고 환자의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마지막까지 간호를 위해 1주일만 더 살 수

종합 newskorea 2005년 1월 5일자 37면
기사 중에서

있도록 해달라는 환자 부인의 애원으로 학가산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로 완치되어 주위의 사랑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력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들여다 보인다
세상 모든 만물이 적용되는 방향이 있어, 골라서 처방하고...
인간에게 잡귀가 스미면 잡아 몰아내야 하고... 병이 나오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독한 병일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정성이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약사경>

대한불교본원종 고경사 (찾아 오시는 길 : 풍기IC에서 20분, 서안동 IC에서 25분)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번지 전화 054-638-8886. 8887 핸드폰 011-507-8885

2005 법륜스님의 불강좌 “부처님법 만난 것을 기뻐합니다.”

부처님의 교화사례

현대인을 위한 법륜스님의 불강좌가 4월 12일부터 부산해운대정토회는 매주 화요일, 그 외 전국정토회에서는 매주 수요일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강좌는 총 8회에 걸쳐 부처님의 교화사례들을 중심으로 ‘부처님 법 만난 것을 기뻐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부산해운대정토회에서 직접 법문하시는 내용들이 전국법당에서 영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일시** : 부산해운대 정토회 4월 12일 ~ 5월 31일 매주 화요일
 전국 정토회 4월 13일 ~ 6월 1일 매주 수요일

▶ **시간** : 오전 11시 / 오후 7시 30분

▶ **장소 및 문의처**

장 소	문 의 처	강 의 내 용
서울 정 토 회	02) 587-8993	1강 수행의 길로 나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다 2강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범바퀴를 굴리다 3강 관념의 벽을 부수고 평등의 세상을 열다 4강 중생의 아픔을 연민으로 삼수하다. 5강 온갖 방편으로 여러식음을 깨우치다 6강 갈등과 분쟁의 세상에 평화의 길을 열다 7강 늙은 가처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다 8강 완전한 행복(열반)의 길로 떠나다
부산해운대정토회	051) 747-9997	
부산동래정토회	051) 557-2746	
대구 정 토 회	053) 744-3025	
대전 정 토 회	042) 253-8990	
청주 정 토 회	043) 284-5951	
마산 정 토 회	055) 247-8991	
울산 정 토 회	052) 245-8995	
광주 정 토 회	062) 511-8990	
김천 정 토 회	017-530-4311	
제천 정 토 회	043) 648-0083	
정읍 정 토 회	019-308-2731	
제주 정 토 회	064) 724-7885	
문경정토마울	054) 571-6031	

정토회
JungTo Society